

〈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새벽, 주 말씀〉

1. 〈하나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〉이 ‘실 가닥만 한 일’ 이라도, 충성으로 행하여라. 〈처음〉에는 ‘실 가닥’ 만 하지만, 점점 행하면 〈나중〉에는 너무나도 ‘크고, 창대한 일’ 이 된다.
2. 하나님과 성령님은 〈처음〉에는 ‘실 가닥’ 같이 시작하시지만, 〈나중〉에는 ‘대(大)역사’ 를 이루신다.
3. 저마다 〈처음〉에는 ‘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’ 이 ‘실 가닥’ 같다.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함께 실천하다 보면, 〈결국〉에는 ‘기적’ 을 이루게 된다.
4. 하나님은 〈처음〉에는 ‘약하게’ 시작해도, 〈나중〉에는 정녕코 ‘아름답고, 웅장하고, 신비하게’ 만들어 놓으시고, 정녕코 ‘그 뜻 하신바’ 를 이루신다. 〈하나님의 역사를 펴실 때〉도 그러하고, 〈창조하신 천지만물을 성장시키실 때〉도 그러하다.
5. 〈하나님의 대(大)역사의 일〉이라도 - 〈처음〉에는 ‘작게’ 시작하는 법이다. 그러므로 작다고, ‘소홀히’ 대하지 말아라.
6. 〈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대화〉도 - 〈처음〉에는 ‘한마디 말’ 로 시작한다. 〈나중〉에는 ‘귀한 말씀’ 을 자기 차원만큼 깨닫게 해주신다.

7. <처음>에 ‘실 가닥’ 같다고 소홀히 하고 안 하면, ‘큰 기회’를 놓치게 된다. <처음>에 ‘작게 시작하여 행하는 것’이 <나중>에는 그렇게도 ‘크고, 웅장하게’ 되기 때문이다.
8. <생각> 나면, ‘실 가닥 같은 일’ 이라도 시작해 봐야 된다. 시작했다가 ‘하나님의 뜻’이 아니면 그만두더라도, 일단 시작해 봐야 된다. 그래야, <하나님이 원하시는 일>을 놓치지 않는다.
9. 사람이 <작은 일>이라고 소홀히 하고 안 하면, <할 일>이 많은데도 ‘할 일’이 없는 것이다.
10. <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>은 ‘뜻’이 있으면, 어디에서든지 시작하신다. 늘 <삼위>를 생각하고 대화해야 ‘그 행하심’을 깨닫고, ‘삼위의 손발’이 되어 행하게 된다.
11. <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>은 ‘24시간’ 행하신다. <생각>이 깨어 있어 예비하고 있으면, ‘삼위의 행하심’을 알고 행하여 매일 ‘표적’을 일으키게 된다.
12. <하나님과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>으로부터 ‘할 일’도 생각나고, ‘시작’도 하고, ‘분별’도 하게 된다.
13. <건축 설계>를 완전하게 해 놓고, <건물의 틀>을 완전하게 짜 놓아야, ‘그 틀대로’ 건물이 완전하게 세워진다. 이와 같이 <하나님의 말씀의 틀>이 정확해야, ‘그 뜻대로’ 행해서 개인

이나 섭리역사의 ‘신앙의 건물들’을 완전하게 세우게 된다.